

5년 뒤 생활폐기물 바로 매립 불가...갈길 바빠진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지금 설치 못하면 ‘쓰레기 대란’ 불보듯

첨단공법 통해 시설 지하화...인접지 1000억원 이상 인센티브

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2030년 실시됨에 따라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매립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 없다면 당장 매립조차 할수 없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은 하루 650t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에에는 총 64만4159㎡의 매립장(매립용량 948만㎡)이 조성돼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 45.7% (433만2000㎡)가 채워졌다.

최근 3년간 광주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재활용 폐기물 제외)는 하루 평균 465~476t으로 당분간 매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2030년부터 시행된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기존처럼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설치를 진행해야만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소각시설이 없으면 결국 매립지가 있어도 매립을 할수 없는 셈이다.

광주시는 환경오염 논란으로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을 폐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광역 자치단체다.

2030년 법 시행에 맞춰 소각장을 설치가 되지 않으면 매립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수 없는 ‘쓰레기 대란’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점, 자원회수시설의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

접해 있다는 점,부지 경제에서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의 기준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부지로 선정해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다.

주민들 반발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광주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립 인접지는 10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600억원 규모의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숙원사업 300억원, 자치구 교부금 200억원 등 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3240억원을 투입해 첨단 공법을 통해 쓰레기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화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깬다.

지상에는 레저·문화·체육·복지 시설을 골고루 구축해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 첨단 공법을 활용해 쓰레기 소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건립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소각장 운영 이후에는 생활 쓰레기 반입수수료 20% (매년 10억 원 이상 예상)를 해당 자치구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아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환경단체도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도심이 아닌 외곽지에 설치한다는 불평등 인식을 깨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면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더 강화하고 건설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민관 합동으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충돌’

국힘, 재산 형성 등 의혹 제기
민주, “무리한 정치공세” 반박

여야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학위 취득, 군 복무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수입 대비 지출이 많고, 중국 청와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퍼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이라고 반격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 부의금 등이 (재산 형성 과정에) 있는데, 출판기념회가 제일 문제”라며 “출판기념회 오는 사람들은 현금 봉투를 내려놓고 간다. 현금 봉투가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8년도에 1억4천만원의 돈거래한 것을 7년 동안 변제를 하지 않다가,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로 지명된 다음에 채무 변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청와대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

“（수업을 위해）중국행 비행기를 뒀다는 시간에 김 후보가 한국에 머물렀다는 것이 기사와 사진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비판을 무리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사건을 키워서 선입관을 갖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 “조의금으로 시비를 거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다”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돈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조의금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출판기념회 또는 조의금, 축의금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김 후보자 흠집을 내려고 무리하게 정치 공작하는 것을 단

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청문회 초반부터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가 분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간사는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채택하면 되는데 이중배 위 원장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것으로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추진

해수부 부산으로 연내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공약이었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연내에 추진 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제가 계획은 돼 있다”면서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 첫 기자회견은 취임 후 100일 전후에 열려왔으나, 이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